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6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8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9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9
III. 경영참고사항	10
1. 사업의 개요.....	10
가. 업계의 현황	10
나. 회사의 현황	12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5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15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선임.....	100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01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2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년 3월 6일

회 사 명 : 대림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윤, 이 해 옥, 박 찬 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전 화) 02) 2011-7114
(홈페이지) <http://www.daeli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손 한 집
(전 화) 02) 2011-713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강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36(수송동) 대림산업㈜ 빌딩 지하1층 강당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주한미국대사관 뒤)
※ 문의) 대표전화 : 02)2011-7114, 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lim.co.kr>
3. 회의 목적사항
《보고 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제6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00원(2%), 우선주 150원(3%)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부터 제2-9호 의안 까지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참조)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부터 제3-3호 의안 까지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별첨 참조)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위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기타사항
 - 제67기 배당은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00원(2%), 우선주 150원(3%)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확정시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수송동)
대 립 산 업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윤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주님의 **택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을 행사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택배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Fax : (02)3774-3244 또는 (02)3774-3245

<송부시한> 2014년 3월 14일(금)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1일 개최하는 대림산업주식회 제67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2014년 3월 일

실 질 주 주 성 명 : (인)
 주 소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사외이사					
				신정식	오수근	임성균	신 마이클 영준	장달중	조진형
제1차	2013.01.28	1호 : 제66기(2012년) 외부감사인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 사항 없음	찬성
		2호 : 제66기(2012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2차	2013.02.07	1호 : 제66기(2012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제67기(2013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이사 등과 회사간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3차	2013.02.18	1호 : 제66기(2012년)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세부내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규 선임)	불참
제4차	2013.03.15	1호 : 이사회 규정 개정(안) 및 이사회내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2호 : 이사회내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3호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4호 : 제작금융 신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제5차	2013.03.28	1호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관련 출자 자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퇴임)
		2호 : 공정거래법상 2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 용역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6차	2013.05.09	1호 : 제67기(2013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공정거래법상 3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 용역거 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호 : 리비아 지사 설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호 : ㈜상호 퍼시픽패키지 현장 시공승계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호 : 사우디 Rabigh II Project Parent Company Guarantee 발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7차	2013.06.10	1호 : 브루나이 지사 설립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제249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8차	2013.06.17	1호 : 북경지사 설립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9차	2013.07.12	1호 : 해와 석탄화력발전소 지분인수 승인의 건	보류	-	-	-	-	불참	
제10차	2013.08.08	1호 : 제67기(2013년)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공정거래법상 4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 · 용역거 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고려개발 자산담보부대여 담보자산 대체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1차	2013.08.27	1호 : 포천북합화력발전사업 변경 금융약정 관련 출자자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2차	2013.09.03	1호 : 브루나이 기존 지사 폐쇄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3차	2013.09.16	1호 : 고려개발 구미봉곡 사업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체결 및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호 : 상호 대전동 사업지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3호 : 상호 제주도 서귀포 사업지 시공승계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제14차	2013.10.07	1호 : 우리은행 일반대출 및 포괄여신한도 연장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고려개발 경산 신대부적지구 공동주택 책임준공확약서 제출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5차	2013.10.16	1호 :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지분인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제16차	2013.11.07	1호 : 제67기(2013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공정거래법상 1분기 동일인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한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7차	2013.12.11	3호 :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호 : ㈜상호 유상증자(출자전환)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해외지사 설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호 :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제18차	2013.12.26	5호 : 천안두정랜드마크프로젝트㈜ 채무면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호 : 에너지전문화사 설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호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호 :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연장에 따른 금전대여계약 만기연장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률				15/18 (83%)	17/18 (94%)	18/18 (100%)	17/18 (94%)	13/14 (93%)	2/4 (50%)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감사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위원회	오수근(사외이사) 신정식(사외이사) 조진형(사외이사)	2013.02.07	제1호 : 제66기(2012년) 결산 검토의 건 제2호 :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가결 가결
	오수근(사외이사) 신정식(사외이사) 임성균(사외이사)	2013.04.17	제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계약 승인의 건	가결 가결
		2013.05.09	제1호 : 2013년 1분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2013.08.08	제1호 : 2013년 반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2013.11.07	제1호 : 2013년 3분기 결산 검토의 건	가결

● 재무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재무위원회	김윤(사내이사) 오규석(사내이사) 조진형(사외이사)	2013.01.18	- 사우디 Butanol and Syngas Project AP, P Bond 연장의 건	가결
		2013.01.21	- 해외 프로젝트 Bond관련 Indemnity Agreement 체결 승인의 건	가결
			- Al Khalij Commercial Bank Banking Facilities 체결 승인의 건	가결
		2013.01.31	- 이란 Esfahan Refinery Project Corporate Guarantee 발급의 건	가결
			- Mashreq Bank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2013.02.04	- e편한세상 가재울 영업대여금 집행의 건	가결
			- 사우디 Elastomers Project R Bond 발급의 건	가결
		2013.02.14	- 의왕내손아파트현장 영업대여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김윤(사내이사) 오규석(사내이사) 임성균(사외이사)	2013.02.19	- 사우디 Butanol and Syngas Parent Guarantee 발급의 건	가결
			- 장기CP 발행의 건	가결
		2013.02.28	- 사우디 SAMAPCO CA/EDC AP, P Bond 만기연장 및 조건 변경의 건	가결
			- 용산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3.18	- 재무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3.26	- 파주 헤이리 G.Clef 리조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옥수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3.29	- 외환은행 Credit Line 만기연장의 건	가결
			- 영십리1구역 재개발아파트 정비조항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4.04	- 사우디 YERP 3, 4용 M Bond 연장의 건	가결
			- 필리핀 SM200 Phase1 Project용 P Bond 연장의 건	가결
	임성균(사외이사)	2013.04.16	- 울산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4.30	-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5.06	- 금호1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5.13	- 북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쿠웨이트 Sulphur Handling Facilities Project P Bond 발급의 건	가결

		- 을지로 비즈니스호텔 신축공사 관련 호텔 매입확약 승인의 건	가결
		- 신한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 연장의 건	가결
2013.05.21		- 오산세마2차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제작금융 신청 승인의 건	가결
		- 사우디 Kayan PC P Bond 연장 및 DSA 신용보강 제공의 건	가결
2013.05.30		- 용산 국제빌딩주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5.31		- 왕십리2구역 e편한세상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사우디 shoaiba M Bond 연장의 건	가결
2013.06.05		- 기부금 집행 승인의 건	가결
2013.06.10		- HSBC Credit Line 만기 연장의 건	가결
2013.06.17		- 영종도 NEST호텔 신축공사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6.21		-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6.28		- 금호15구역 재개발사업 사업비 대출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유니온내셔널뱅크 Credit Line 연장의 건	가결
		- 사우디 Yanbu 3 M Bond 연장의 건	가결
		- 쿠웨이트 SHFP P Bond 연장의 건	가결
2013.07.08		- 세마2차 e편한세상 공사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7.12		- 쿠웨이트 Sulphur Handling Facilities Project AP Bond 발급의 건	가결
2013.08.06		- 사우디 Butanol and Syngas Project AP, P & Tax Bond 변경 발급 및 DSA 신용보강 제공의 건	가결
		- DBS Bank Credit Line 체결의 건	가결
		- 사우디 Butanol and Syngas Parent Company Guarantee 발급 승인의 건	가결
		- 신한은행 Credit Line 연장의 건	가결
		- 제작금융 신청 승인의 건	가결
2013.08.12		- DSA대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9.23		-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 제주항공우주호텔㈜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013.09.30		- 사우디 YERP-3 Project M Bond 연장의 건	가결
		- 하나은행 여신한도 약정 연장의 건	가결
		- 왕십리1구역 재개발 아파트 정비조합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0.07		- 삼산 e편한세상 2구역 공사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0.18		- 사우디SAMAPCO CA/EDC P Bond 증액, 연장 및 DSA 신용보강 제공의 건	가결
2013.10.24		-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0.29		- DSA 대여 연장의 건	가결
2013.11.01		- 용인남사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05		- 용인남사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06		- 용인남사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07		- 용인남사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08		- 용인남사 e편한세상 아파트 프로젝트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15		- e편한세상 검단2차 1-3구역 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상호 자본감소 승인의 건	가결
2013.11.21		- 사우디 Sadara MFC P Bond 증액 관련 DSA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26		- 대구광역시 폐기물에너지화(BTO)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관련 출자자약정 등 체결 승인의 건	가결
		- DSA 운영자금 대출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e편한세상 옥수13구역 아파트 사업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1.29		- e편한세상 왕십리2구역 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2.13		- 아크로리버파크 반포 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오만 Sohar Refinery Improvement Project AP, P Bond 발급 승인의 건	가결
		2013.12.17	- DSA 운영자금 대출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서울터널㈜ 유상증자 참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2.19	-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 사업 관련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2013.12.26	- 말레이시아 Fast Track 3A Project P Bond 발급 및 DMSB 신용공여 승인의 건	가결

● 보상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보상위원회	오규석(사내이사) 신 마이클 영준(사외이사) 임성균(사외이사)	2013.02.07	- 2013년 등기임원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오규석(사내이사) 신 마이클 영준(사외이사) 장달중(사외이사)	2013.05.09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오규석(사내이사) 신 마이클 영준(사외이사)	2013.02.18	제1호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사외이사 후보 : 신정식, 오수근, 신 마이클 영준, 임성균, 장달중)	가결
	임성균(사외이사)	2013.05.09	제1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명	4,000	192	38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4명을 포함한 총 9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계약기간)	거래금액		비율(%)
여천NCC㈜ (특수관계인)	원재료 및 Utility 매매 계약등	2013.01.01 ~ 2013.12.31	매입	8,874	12.6
			매출	2,531	
			계	11,405	
㈜대림코퍼레이션 (최대주주 본인)	HDPE/PB 판매, 구매 계약등	2013.01.01 ~ 2013.12.31	매입	2,402	12.6
			매출	8,982	
			계	11,384	

* 상기 비율은 2012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9조 418억원) 대비 비율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주로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활동에 착수하고 구조물, 건축물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수주산업의 성격을 띠며, 생산활동이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생산장소의 지속성과 정착성이 없으며 이동성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자본·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관리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종합산업이기도 합니다.

건설산업은 주택 및 빌딩건설에서부터 도로·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및 각종 산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국토개발 및 국제적인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납사 분해공장(NCC)을 모체로 기초유분과 관련 유도품 공장이 계열화되어 있는 장치산업으로 전형적인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또한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정밀화학 등 전방산업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인 동시에 목재, 철강, 섬유, 고무 등 천연소재를 대체하는 기초소재 산업이며, 대규모 생산능력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② 산업의 성장성

[건설사업부문]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과거와 달리,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도 성장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추세로 인해, 건설업도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IT 등과 같은 여러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녹색성장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시장규모, 수출규모 등 산업 내에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능성고분자재료를 이용한 특수소재의 개발로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③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업은 수주산업이고 경기에 후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산업활동의 변동 및 경제성장의 추세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 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수익성이 일정한 사이클 내에서 변화하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석유화학 경기의 사이클은 7~10년입니다. 또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의 경기 및 정정(政情)에 따라 경기부침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④ 경쟁요소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 대부분의 공사수주는 일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간의 제한경쟁이며 최저가 공사인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적격공사인 경우는 공사실적, 재무능력, 기술력, 신인도, 가격 등이 종합된 수행능력이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TK 등에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형지식, 인적자원, 재무능력, PROJECT 경험실적
- 기술력, 브랜드 가치, PROJECT 관리능력, FINANCING 능력
- 영업 및 자원조달에 대한 정보력

[석유화학사업부문]

범용위주의 기존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생산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시장 Share를 가늠하는 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등 저가 원료 개발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제품의 차별화 및 고객가치향상이 주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⑤ 자원조달상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노동력 투입비중이 크지만 3D업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계화 시공의 확대 보급, 외국인 숙련 인력 투입 등으로 부족한 기능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의 자재 수급은 국내외 건설경기, 수급상황 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석유를 원료로 하는 산업으로서 석유에 대한 원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원유가격이 그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중동지역은 에탄계 가스원료 사용도가 40~70%로 원료경제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체할 수 있는 원료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를 나프타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수급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⑥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사업부문]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발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고용 유발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는 경제상황이나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건설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관련 각종법령이나 제도를 변경하여 왔고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공공공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처인 관계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각종 정부가 제정하는 법령이나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는 2000년 도입된 이후 현행 300억원까지 대상을 확대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저가투찰에 따른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제로 변경하여 제도마련 후 시행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은 정책목적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왔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방향이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세제혜택과 공급부족지역 위주로 수요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물류시설 대형화, 노년층 증가로 인한 의료시설 공급 증가, 대기업 R&D센터 등의 연구시설 증가 등으로 산업별 경기에 따라 상품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정부 법령 및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각종 환경법 강화, 하절기/동절기 전력사용 규제 등 사회적으로 HSE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 규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하여 HSE절차서 개정작업 및 직원교육을 통해 실행력 강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시스템(PSM/SMS) 요건에 충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수준 평가 및 인간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적인 선진화학기업을 중심으로 설립된 RC(Responsible Care) 협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건설사업부문]

2013년 건설사업부 수주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환경에서 말레이시아 1,000MW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오만 소하르 정유공장 증설공사 수주 등을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와 플랜트 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밀머랜 발전소 지분 인수를 통해 해외 IPP시장에 진출함으로써 Developer로서 해외 민자발전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집행부문은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서 현지 기자재 가격 상승, 협력업체 부도, 자재물량 증가,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 등으로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전기대비 부진한 경영실적을 보였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4분기에 전액 인식하고 준공 시까지 예상되는 모든 손실요인에 대한 1,323억원의 비용을 공사손실 충당금으로 4분기에 선반영함으로써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적자현상이 모두 준공되고, 2013년 신규 수주한 해외공사 원가율이 예년에 비해 양호하여 정상적인 이익을 회복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찰에서부터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공사수행 및 준공 단계까지 해외공사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집행 원가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건설수주는 SOC 및 신규사업 예산 감소, 정부의 SOC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기조 전환, 공약사업 발주 및 대형공사 발주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수주는 소폭 회복된 거시경제 및 주택 공급 여건,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나 수주액은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수주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완화와 신흥지역 경제성장으로 중동과 아시아에서 수주확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동지역은 GCC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발주가 지속되어 최근 10년간 이어진 중동 위주의 수주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중남미에서 최근 몇 년간 수주가 증가해왔고, 아프리카, CIS 등 신시장에서의 수주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어 수주시장의 다변화는 꾸준히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공사수행과 외환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2013년 석유화학 경기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수요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국내 석유화학의 주요 시장인 중국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일가스 등 저원가 기반 제품들의 공급으로 범용제품시장의 경쟁은 심화되었으나 기술 기반의 Specialty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나프타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 석유화학사업부문은 공장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로 매출액은 전년대비 0.4%감소한 1조 2,985억원을 기록하였으나, 고부가제품 판매확대, 고품질, 고기능성 특화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여 수익성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 및 원가 개선 활동에 매진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둔 한 해 였습니다.

2014년 석유화학 경기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유가 안정화에 따라 영업환경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설비 확대 등 차이나 리스크 심화와 세일가스 등 저원가 기반의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여전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은 2014년에도 고품질, 고기능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및 새로운사업기회 창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World Best 수준의 원가경쟁력 및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혁신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전문화된 화학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 시장점유율

[건설사업부문]

2013년 수주액은 K-IFRS 연결기준 8조 6,523억원으로 국내수주 3조 1,986억원, 해외수주 5조 4,537억원을 달성했습니다.

※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당사의 주요제품은 PB, HDPE, FILM 등이 있으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건설사업부문]

건설시장은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의 3개 분야로 구분되며, 주 수요처는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대규모 장치산업(발전소, 원유저장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설시장의 발주처는 정부 또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공업체는 해당 공정별 및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정책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석유화학산업은 각종 산업에 필요한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 세계경기, 유가변동에 따라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7~8년)으로 반복되는 경기의 진폭이 큰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원료가격 변동 심화로 가격의 변동이 커지고 경기변동 Cycle의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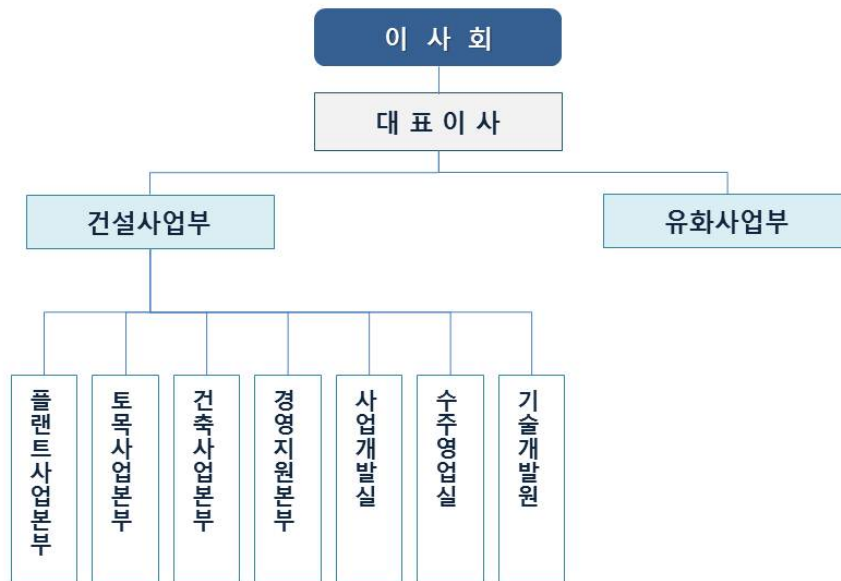
[건설사업부문]

당해 사업연도 중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기로 이사회결의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석유화학사업부문]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로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선진 외국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사업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제6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7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말	제 66(전) 기말
---	---	------------	------------

자	산			
I. 유동자산		6,933,025,544,210		7,292,090,327,677
1. 현금및현금성자산	1,562,914,458,662		1,476,697,461,369	
2. 단기금융상품	46,200,000,000		35,202,723,55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354,237,129,602		2,540,497,428,516	
4. 미청구공사	1,356,671,102,330		1,370,496,672,168	
5. 재고자산	1,036,183,566,740		1,154,687,291,959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8,779,510,560		130,369,510,560	
7. 매도가능금융자산	150,000		455,000	
8. 파생상품자산	24,339,276,946		42,591,351,699	
9. 당기법인세자산	8,980,992,878		2,999,886,134	
10. 기타유동자산	504,719,356,492		538,547,546,722	
II. 비유동자산		3,850,021,552,173		3,714,379,034,895
1. 장기금융상품	16,696,285,361		16,400,154,166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954,133,392,987		1,016,460,660,904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727,808,543,431		644,336,756,264	
4. 매도가능금융자산	270,493,078,819		262,704,565,356	
5. 유형자산	1,402,233,580,841		1,517,213,235,914	
6. 무형자산	80,638,533,455		79,217,676,668	
7. 투자부동산	238,729,829,161		120,383,916,986	
8. 파생상품자산	4,930,913,759		4,533,249,724	
9. 이연법인세자산	146,728,811,110		53,120,263,834	
10. 기타비유동자산	7,628,583,249		8,555,079	
자 산 총 계		10,783,047,096,383		11,006,469,362,572
부	채			
I. 유동부채		4,460,407,571,316		4,778,509,307,868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050,567,806,563		2,088,977,648,948	
2. 초과청구공사	727,736,581,882		791,938,173,305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864,776,053,119		677,263,123,944	
4. 당기법인세부채	15,817,189,734		77,184,073,822	
5. 기타충당부채	28,086,643,444		41,241,209,969	
6. 파생상품부채	4,608,608,114		9,280,372,439	
7. 기타유동부채	768,814,688,460		1,092,624,705,441	
II. 비유동부채		1,452,304,269,631		1,309,415,975,106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6,536,831,676		236,289,862,255	
2. 차입금및사채	978,949,614,716		826,519,433,977	
3. 순확정급여부채	21,366,787,857		30,926,249,634	
4. 하자보수충당부채	69,764,013,493		72,741,487,685	
5. 기타충당부채	36,127,010,304		4,460,986,915	
6. 금융보증부채	52,410,985,713		51,874,148,130	
7. 파생상품부채	713,565,875		1,329,033,046	
8. 이연법인세부채	84,101,473,759		85,274,773,464	
9. 기타비유동부채	32,333,986,238		-	
부 채 총 계		5,912,711,840,947		6,087,925,282,974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714,058,265,453		4,778,689,412,919
1. 자본금	218,500,000,000		218,500,000,000	

2. 기타불입자본	505,867,980,930		506,898,937,367	
3. 이익잉여금	3,961,356,524,180		4,004,703,459,292	
4. 기타자본구성요소	28,333,760,343		48,587,016,260	
II. 비지배지분		156,276,989,983		139,854,666,679
자 본 총 계		4,870,335,255,436		4,918,544,079,598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0,783,047,096,383		11,006,469,362,572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매출액		9,846,917,118,793		10,253,347,411,173
II. 매출원가		9,338,152,143,089		9,219,385,960,618
III. 매출총이익		508,764,975,704		1,033,961,450,555
판매비및관리비	469,106,737,149		547,909,479,384	
IV. 영업이익		39,658,238,555		486,051,971,171
기타수익	279,463,278,591		267,966,878,276	
기타비용	381,359,499,219		232,422,141,914	
금융수익	117,427,973,771		95,999,572,905	
금융비용	125,512,584,317		102,212,435,900	
지분법투자손익	56,721,269,121		44,680,149,57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601,323,498)		560,063,994,115
법인세비용(이익)		(3,268,891,063)		159,276,132,323
VI. 당기순이익(손실)		(10,332,432,435)		400,787,861,792
VI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4,836,758,281)		391,122,199,393	
비지배지분	14,504,325,846		9,665,662,399	
VIII.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648)		10,128
희석주당이익(손실)		(648)		10,128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당기순이익(손실)		(10,332,432,435)		400,787,861,792
II. 기타포괄손익		(19,896,172,127)		(19,621,125,45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590,947,384		(8,021,692,398)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186,865,765)		1,913,584,56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8,134,721,861		(2,134,464,333)	
2. 매각예정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5,990,561	
3. 해외사업환산손익	(26,844,758,462)		(20,232,217,554)	
4. 지분법자본변동	592,896,472		445,198,964	
5. 부의지분법자본변동	(199,934,411)		(208,689,626)	
6.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983,179,206)		8,501,164,373	
III. 총포괄이익(손실)		(30,228,604,562)		381,166,736,341
VI.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손실)	(44,110,191,029)		371,617,270,450	
비지배주주지분포괄이익	13,881,586,467		9,549,465,891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비지배주주 지분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합병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기타				
I. 2012.01.01(전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26,791,529,028)	3,623,466,396,116	62,256,808,986	220,517,103,036	4,637,398,379.29 1
1. 연차배당	-	-	-	-	-	(4,050,000,000)	-	(14,823,100,176)	(18,873,100,176)
2. 총포괄손익	-	-	-	-	-	385,287,063,176	(13,669,792,726)	9,549,465,891	381,166,736,341
당기순이익	-	-	-	-	-	391,122,199,393	-	9,665,662,399	400,787,861,792
매각예정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87,920,845	-	87,920,84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1,665,677,796)	-	(1,665,677,796)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20,388,992,665)	156,775,111	(20,232,217,554)
지분법자본변동	-	-	-	-	-	-	8,455,143,627	-	8,455,143,627
무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158,186,737)	-	(158,186,73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5,835,136,217)	-	(272,971,619)	(6,108,107,836)
3.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	-	(12,457,327)	-	-	(5,397,521)	(17,854,848)
4. 종속기업지분변동으로 인한 증감	-	-	-	-	(5,746,676,459)	-	-	(17,156,009,551)	(22,902,686,010)
5.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58,227,395,000)	(58,227,395,000)
II. 2012.12.31(전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2,550,662,814)	4,004,703,459,292	48,587,016,260	139,854,666,679	4,918,544,079.59 8
III. 2013.01.01(당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2,550,662,814)	4,004,703,459,292	48,587,016,260	139,854,666,679	4,918,544,079.59 8
1. 연차배당	-	-	-	-	-	(19,490,000,000)	-	-	(19,490,000,000)
2. 총포괄손익	-	-	-	-	-	(23,856,935,112)	(20,253,255,917)	13,881,586,467	(30,228,604,562)
당기순손실	-	-	-	-	-	(24,836,758,281)	-	14,504,325,846	(10,332,432,43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6,103,677,059	-	6,103,677,05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26,797,760,633)	(46,997,829)	(26,844,758,462)
지분법자본변동	-	-	-	-	-	-	592,377,940	-	592,377,940
무의지분법자본변동	-	-	-	-	-	-	(151,550,283)	-	(151,550,28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979,823,169	-	(575,741,550)	404,081,619
3. 종속기업지분변동으로 인한 증감	-	-	-	-	(1,030,956,437)	-	-	1,030,956,437	-
4.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1,509,780,400	1,509,780,400
IV. 2013.12.31(당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3,581,619,251)	3,961,356,524,180	28,333,760,343	156,276,989,983	4,870,335,255.43 6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4,694,667,168		816,888,129,184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60,502,606,472		871,512,462,739	
가. 당기순이익(손실)	(10,332,432,435)		400,787,861,792	
나. 조정	326,919,439,429		334,853,059,083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156,084,400,522)		135,871,541,864	
2. 이자의 수취	38,827,368,753		60,900,176,478	
3. 이자의 지급	(89,301,271,917)		(83,229,140,417)	
4. 배당의 수취	85,935,554,883		156,282,802,550	
5. 법인세 납부액	(161,269,591,023)		(188,578,172,16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731,488,243)		(332,656,984,21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05,249,831,635		533,623,160,564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56,211,003,550		198,115,966,596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384,047,711,483		123,789,852,064	
다. 기타당좌자산의 감소	4,950,000,000		2,100,000,000	
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68,878,430,055		1,188,469,118	
마.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8,871,575,867		11,532,346,560	
바.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		-	
사. 장기대여금의 감소	153,506,447,369		193,630,740,016	
아. 보증금의 감소	821,484,000		355,000,000	
자. 투자부동산의 처분	2,860,900,000		783,156,562	
차. 토지의 처분	12,070,324,381		1,001,000,000	
카. 건물의 처분	1,858,673,828		-	
타. 구축물의 처분	14,578,981		-	
파. 기계장치의 처분	454,390,745		150,638,356	
하. 차량운반구의 처분	212,368,756		111,415,912	
거. 기타의유형자산의 처분	142,490,354		285,455,380	
너. 정부보조금의 수령	136,452,266		68,200,000	
더. 무형자산의 처분	-		510,920,000	
러. 기타투자자산의 감소	210,00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74,981,319,878)		(866,280,144,776)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7,208,280,000		102,803,285,628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318,197,086,673		221,125,784,371	
다. 기타당좌자산의 증가	4,500,000,000		-	
라.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81,746,700,000		748,345,000	
마.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65,464,435,207		54,163,239,995	
바.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43,908,980	
사. 장기대여금의 증가	294,100,689,870		320,085,829,084	
아. 보증금의 증가	763,592,000		520,000,000	
자. 투자부동산의 취득	1,279,649,715		-	

차. 토지의 취득	11,020,898		229,170,756	
카. 건물의 취득	3,268,522,102		558,529,614	
타. 구축물의 취득	707,252,993		768,530,401	
파. 기계장치의 취득	9,729,029,906		7,492,993,622	
하. 차량운반구의 취득	2,626,961,308		3,008,027,325	
거. 기타의 유형자산의 취득	7,849,360,079		8,099,149,974	
너.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112,756,391,552		135,565,435,898	
더. 무형자산의 취득	4,692,264,014		9,783,038,738	
러.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74,000,000		170,840,909	
머. 지배력상실로 인한 순현금흐름	6,083,561		1,014,034,481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0,313,170,380		(331,413,585,853)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249,655,463,029		3,332,512,655,893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2,028,887,021,336		2,662,249,906,921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	1,004,869,250,000		321,747,524,572	
다. 사채의 발행	214,389,411,293		348,080,224,400	
라. 종속기업 유상증자로 인한 현금유입액	1,509,780,400		-	
마. 정부보조금의 수령	-		178,000,000	
바. 기타고정부채 증가	-		257,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29,342,292,649)		(3,663,926,241,746)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2,077,989,155,696		2,770,060,343,492	
나. 장기차입금의 상환	165,000,000,000		350,605,278,610	
다.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665,984,019,973		501,333,004,778	
라. 종속기업주식 추가취득	-		22,952,000,000	
마. 정부보조금의 지출	613,616,980		659,842	
바. 기타고정부채 감소	265,500,000		84,000,000	
사. 배당금의 지급	19,490,000,000		18,873,100,176	
아. 자기주식의 취득	-		17,854,848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85,276,349,305		152,817,559,11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76,697,461,369		1,325,037,187,849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940,647,988		(1,157,285,599)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562,914,458,662		1,476,697,461,369

⑥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7(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1976년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주)과 함께 여천 NCC(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건설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림엔지니어링(주)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우선주 21,000백만원 포함)은 218,500백만원이며,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주)대림코퍼레이션(21.67%)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2월 27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 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 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 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 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 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 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 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 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여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에 대한 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연결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4)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 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1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건축물	8~40년
기계장치	4~15년
차량운반구, 기타의유형자산	1~12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2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가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며,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6)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연결실체는 당기에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재분류 하였습니다. 계정과목 재분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전 분류	변경후 분류	당 기	전 기
연결재무상태표	매각예정관련부채	선수금	37,117	128,707
연결현금흐름표	매각예정관련부채의 증가	선수금의 증가	-	37,117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7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말		제 66(전)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6,490,374,989,288		6,752,410,357,82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46,764,545,599		1,377,580,353,813	
2. 단기금융상품	33,200,000,000		23,2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192,345,278,116		2,430,627,615,601	
4. 미청구공사	1,314,071,720,760		1,231,610,178,988	
5. 재고자산	990,212,605,030		1,062,667,140,876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8,779,510,560		130,369,510,560	

7. 파생상품자산	24,339,276,946		42,591,351,699	
8. 당기법인세자산	6,260,798,937		-	
9. 기타유동자산	444,401,253,340		453,764,206,287	
II. 비유동자산		3,438,820,697,316		3,413,455,977,500
1. 장기금융상품	15,216,722,287		15,028,500,000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918,843,795,498		982,597,084,819	
3. 종속기업주식	522,943,632,327		556,905,989,196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710,335,579,552		604,901,564,960	
5. 매도가능금융자산	215,893,394,409		210,176,562,242	
6. 유형자산	705,420,140,297		833,738,529,892	
7. 무형자산	39,064,554,415		34,555,578,527	
8. 투자부동산	211,985,496,359		114,802,667,837	
9. 파생상품자산	4,930,913,759		4,533,249,724	
10. 이연법인세자산	86,557,885,164		56,207,695,224	
11. 기타비유동자산	7,628,583,249		8,555,079	
자 산 총 계		9,929,195,686,604		10,165,866,335,324
부 채				
I. 유동부채		3,854,111,732,825		4,224,643,449,59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60,234,772,695		1,902,423,800,562	
2. 초과청구공사	541,200,263,767		621,115,580,779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829,094,645,558		577,551,734,308	
4. 당기법인세부채	6,341,589,072		71,745,512,820	
5. 기타충당부채	24,050,860,768		37,165,800,773	
6. 파생상품부채	4,608,608,114		9,280,372,439	
7. 기타유동부채	688,580,992,851		1,005,360,647,909	
II. 비유동부채		1,122,162,350,722		1,124,451,241,330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0,236,978,099		203,876,606,149	
2. 차입금및사채	791,032,803,423		772,330,010,004	
3. 순확정급여부채	10,413,366,820		19,409,819,587	
4. 하자보수충당부채	68,780,315,493		71,757,789,685	
5. 기타충당부채	34,611,948,118		3,873,834,729	
6. 금융보증부채	52,410,985,713		51,874,148,130	
7. 파생상품부채	713,565,875		1,329,033,046	
8. 기타비유동부채	23,962,387,181		-	
부 채 총 계		4,976,274,083,547		5,349,094,690,920
자 본				
I. 자본금	218,500,000,000		218,500,000,000	
II. 기타불입자본	539,449,600,181		539,449,600,181	
III. 이익잉여금	4,228,416,485,882		4,080,049,541,705	
IV. 기타자본구성요소	(33,444,483,006)		(21,227,497,482)	
자 본 총 계		4,952,921,603,057		4,816,771,644,40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929,195,686,604		10,165,866,335,324

②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매출액		8,441,746,614,090		9,041,849,749,492
II. 매출원가		7,726,790,782,829		8,104,516,447,881
III. 매출총이익		714,955,831,261		937,333,301,611
판매비및관리비	439,737,094,672		470,950,037,455	
IV. 영업이익		275,218,736,589		466,383,264,156
기타수익	347,160,252,976		423,720,495,273	
기타비용	406,583,042,966		255,959,484,870	
금융수익	116,005,271,290		92,819,990,716	
금융비용	117,581,023,834		92,831,948,307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4,220,194,055		634,132,316,968
법인세비용		48,367,819,114		145,159,791,837
VI. 당기순이익		165,852,374,941		488,972,525,131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4,292		12,663
희석주당이익		4,292		12,663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당기순이익		165,852,374,941		488,972,525,131
II. 기타포괄손익		(10,212,416,288)		(26,873,444,43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2,644,550,443		(6,764,192,516)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639,981,207)		1,636,934,58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5,998,759,241		(4,382,164,262)	
2. 매각예정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5,990,560	
3. 해외사업환산손익	(16,764,045,029)		(18,512,426,841)	
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	(1,451,699,736)		1,032,414,036	
III. 당기총포괄이익		155,639,958,653		462,099,080,697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 계
		주식발행 초과금	합병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I. 2012.1.1(전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3,600,254,274,501	518,689,025	4,358,722,563,707
1. 연차배당	-	-	-	-	(4,050,000,000)	-	(4,050,000,000)
2. 총포괄손익	-	-	-	-	483,845,267,204	(21,746,186,507)	462,099,080,697
당기순이익	-	-	-	-	488,972,525,131	-	488,972,525,13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5,127,257,927)	-	(5,127,257,927)
매각예정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87,920,845	87,920,845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3,321,680,511)	(3,321,680,51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8,512,426,841)	(18,512,426,841)
II. 2012.12.31(전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4,080,049,541,705	(21,227,497,482)	4,816,771,644,404
III. 2013.1.1(당기초)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4,080,049,541,705	(21,227,497,482)	4,816,771,644,404
1. 연차배당	-	-	-	-	(19,490,000,000)	-	(19,490,000,000)
2. 총포괄손익	-	-	-	-	167,856,944,177	(12,216,985,524)	155,639,958,653
당기순이익	-	-	-	-	165,852,374,941	-	165,852,374,94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2,004,569,236	-	2,004,569,23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4,547,059,505	4,547,059,505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16,764,045,029)	(16,764,045,029)
IV. 2013.12.31(당기말)	218,500,000,000	296,043,884,319	145,062,023,472	98,343,692,390	4,228,416,485,882	(33,444,483,006)	4,952,921,603,057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14년 3월 21일

처분확정일 2013년 3월 15일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81,690,081,230	1,449,547,025,407	1,332,617,147,359	1,816,462,414,56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004,569,236		(5,127,257,927)	
당기순이익	165,852,374,941		488,972,525,131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18,333,333,334		6,666,666,667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8,333,333,334		6,666,666,667	
III. 합계		1,467,880,358,741		1,823,129,081,230
IV.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174,455,000,000		541,439,0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405,000,000		1,949,000,000	
재무구조개선적립금	50,000,000,000		120,000,000,000	
배당금	100,000,000,000		300,000,000,000	
현금배당	20,000,000,000		100,000,000,000	
주당배당금(를) :	4,050,000,000		19,490,000,000	
보통주 : 당기 100원	4,050,000,000		19,490,000,000	
(2%)				
전기 500원				
(10%)				
우선주 : 당기 150원				
(3%)				
전기 550원				
(11%)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93,425,358,741		1,281,690,081,230

⑥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67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단위: 원)

과목	제 67(당) 기		제 66(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216,111,062		761,510,254,797
1.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174,398,388,866		774,064,776,120	
가. 당기순이익	165,852,374,941		488,972,525,131	
나. 조정	257,199,575,487		178,329,542,811	
다. 순운전자본의 변동	(248,653,561,562)		106,762,708,178	
2. 이자의 수취	37,298,057,679		57,565,889,884	
3. 이자의 지급	(82,212,239,124)		(73,484,661,360)	
4. 배당의 수취	86,206,316,323		184,876,636,477	
5. 법인세 납부액	(152,474,412,682)		(181,512,386,324)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45,235,675,052)		(289,866,155,58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3,422,997,175		437,893,043,709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23,208,280,000		128,154,114,703	
나. 단기대여금의 감소	383,794,824,810		102,003,196,741	
다. 기타당좌자산의 감소	4,950,000,000		2,100,000,000	
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68,878,430,055		-	
마.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18,863,443,974		11,752,153,306	
바.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000,000		-	
사. 장기대여금의 감소	153,366,903,369		191,601,983,815	
아. 투자부동산의 처분	-		783,156,562	
자. 토지의 처분	134,477,190		1,001,000,000	
차. 기계장치의 처분	49,819,168		8,354,756	
카. 차량운반구의 처분	167,828,210		55,181,376	
타.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5,990,399		5,702,450	
파. 정부보조금의 수령	-		68,200,000	
하. 무형자산의 처분	-		36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98,658,672,227)		(727,759,199,298)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3,208,280,000		35,453,489,991	
나. 단기대여금의 증가	360,171,000,000		198,056,748,746	
다. 기타당좌자산의 증가	4,500,000,000		-	
라. 종속기업및관계기업 주식의 취득	89,532,199,600		23,082,265,000	
마.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65,375,992,867		52,260,165,000	
바. 장기대여금의 증가	293,949,489,870		318,226,289,084	
사. 투자부동산의 취득	1,279,649,715		-	
아. 구축물의 취득	-		472,800,000	
자. 기계장치의 취득	67,529,472		1,968,318,825	
차. 차량운반구의 취득	422,654,260		498,435,932	
카.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3,577,320,869		4,580,927,410	
타.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44,915,492,807		85,179,477,510	
파. 무형자산의 취득	1,659,062,767		7,980,281,8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0,074,303,770		(206,992,200,00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50,772,613,775		3,275,966,865,000	
가. 단기차입금의 차입	1,988,621,013,775		2,647,881,765,000	
나. 장기차입금의 차입	862,800,000,000		280,000,000,000	
다. 사채의 발행	199,351,600,000		348,085,1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00,698,310,005)		(3,482,959,065,008)	
가. 단기차입금의 상환	2,038,621,013,775		2,700,696,260,230	
나.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592,587,296,230		458,212,804,778	
다. 장기차입금의 상환	150,000,000,000		320,000,000,000	
라. 배당금의 지급	19,490,000,000		4,05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68,054,739,780		264,651,899,20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377,580,353,813		1,113,138,310,718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129,452,006		(209,856,105)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446,764,545,599		1,377,580,353,813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7(당) 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 66(전)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림산업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1976년 한국거래소에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석유화학(주)와 함께 여천NCC(주)를 설립하였고, 1999년 엔지니어링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및 건설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림엔지니어링(주)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토목, 건축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18,500백만원(우선주 21,000백만원 포함)이며,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주)대림코퍼레이션(21.67%)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4년 2월 27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중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기준으로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5)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도급계약 등에 따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회계처리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KRW)'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당사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세전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의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20~40년
건축물	10~40년
기계장치	4~12년
차량운반구	4년
기타의유형자산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채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고 있습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하며,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파생상품

당사는 외화거래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계속

(22)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당사는 당기에 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재분류 하였습니다. 계정과목 재분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전 분류	변경후 분류	당 기	전 기
재무상태표	매각예정관련부채	선수금	37,117	128,707
현금흐름표	매각예정관련부채의 증가	선수금의 증가	-	37,117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3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67기(당기)	제66기(전기)
주당배당금	보통주	100원	500원
	우선주	150원	550원
액면배당율	보통주	2%	10%
	우선주	3%	11%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의안 번호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제2-1호 의안	이해욱	1968.02.14	사내이사	주요주주	이사회
제2-2호 의안	김동수	1956.09.3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제2-3호 의안	이철균	1957.09.09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제2-4호 의안	김재율	1957.10.20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제2-5호 의안	오수근	1956.08.29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2-6호 의안	신 마이클 영준	1961.12.28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2-7호 의안	임성균	1953.10.2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2-8호 의안	장달중	1948.04.02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제2-9호 의안	김태희	1954.12.13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9)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이사(부회장)	2005 ~ 2009 대림산업 부사장 2007 ~ 2013 대림코퍼레이션 대표이사 2010 ~ 대림산업 부회장	없음
김동수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사장)	2011 ~ 2011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부사장 2012 ~ 대림산업 토목사업본부 본부장(사장)	없음
이철균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본부장(사장)	2012 ~ 2012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부사장 2013 ~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 본부장(사장)	없음
김재율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	2005 ~ 2007 LG화학 Bohai 법인장 2008 ~ 2010 LG화학 Yongxing 법인장 2011 ~ 2013 LG화학 ABS, EP 사업부장(전무) 2013 ~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본부 본부장(부사장)	없음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6 ~ 2000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0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8 ~ 2004 법무부 통합도산법제정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장 2010 ~ 2012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처장 2010 ~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	없음
신 마이클 영준	법무법인 KCL 미국변호사	1987 ~ 1990 美 맥킨지社 법률자문 1992 ~ 1999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 1995 ~ 한국담배인삼공사 고문 국제변호사 2000 ~ 법무법인 KCL 미국 변호사	없음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1999 ~ 2005 재정경제부 국세조사과장, 혁신담당관, 서기관 등 2006 ~ 2009 기획재정부 국제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감사관 2009 ~ 2010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 2012 ~ 세무법인 다솔 회장	없음
장달중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1999 ~ 2013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2000 ~ 2004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03 ~ 2007 통일부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2013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없음
김태희	삼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985 ~ 1996 서울, 부산,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1997 ~ 2008 부산지검 특수부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2009 ~ 2013 화승, 코레일, 에스까다, 자유총연맹 고문 변호사 등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제3-1호의안	오수근	1956.08.29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제3-2호 의안	임성균	1953.10.2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제3-3호 의안	신 마이클 영준	1961.12.28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6 ~ 2000 인하대학교 법학과 교수 2000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8 ~ 2004 법무부 통합도산법제정위원회 위원장 2009 ~ 2010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의장 2010 ~ 2012 이화여자대학교 기획처 처장 2010 ~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 의장	없음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	1999 ~ 2005 재정경제부 국세조사과장, 혁신담당관, 서기관 등 2006 ~ 2009 기획재정부 국제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세청 감사관 2009 ~ 2010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장 2012 ~ 세무법인 다솔 회장	없음
신 마이클 영준	법무법인 KCL 미국변호사	1987 ~ 1990 美 맥킨지社 법률자문 1992 ~ 1999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 1995 ~ 한국담배인삼공사 고문 국제변호사 2000 ~ 법무법인 KCL 미국 변호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당 기(2014년)	전 기(2013년)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명 (5명)	9명 (5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억원	4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전기(2013년) 이사보수 집행금액 : 21억원(52%)